

사회진보연대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어용나팔수

사회진보연대의
〈반변혁〉적 〈종파〉적 실체

제국주의와 파시즘과 투쟁하는 사람들

목차

| 서문 | **제국주의·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를 박멸하자** 2

사회진보연대와의 사상전은 제국주의·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백신이자 변혁운동발전의 사활적 과제

| 초점 | **사회진보연대는 누구의 편인가?** 3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대변하는 3가지 악성바이러스 4

- 1) 미·유럽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진보연대
- 2) 파시스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회진보연대
- 3) 북·중·러를 반대하는 반민중전선을 구축하자는 사회진보연대

| 분석 | **변혁운동대오내 침투한 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주의의 온상인 사회진보연대** 9

사회진보연대의 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주의적 실체

| 현장 | **사회진보연대의 반변혁적 <말>과 <글>** 11

- 1) 사회진보연대의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2중잣대
- 2)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만 죽이는 사회진보연대
- 3) 미제국주의가 조종하는 <색깔혁명>전략에 복무하는 사회진보연대
- 4) 그릇된 노선과 잘못된 정책을 유포하는 사회진보연대
- 5) 일본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진보연대

극우언론이 극찬하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에 내외부가 침 뱉고 돌아서는 건 필연

| 비교 | **윤석열과 사회진보연대 그리고 진보진영** 18

| 서문 |

제국주의·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를 박멸하자

사회진보연대와의 사상전은 제국주의·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백신이자
변혁운동발전의 사활적 과제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가 변혁운동 내부에 침투해 변혁적인 사상과 이론, 실천을 교란하고 마비시키고 있다. 그 악성바이러스는 바로 사회진보연대다. 왜 그런가. 그건 놀랍게도 사회진보연대가 변혁운동대내에 유포하고 있는 정세분석과 선동내용이 바로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사상이론, 책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변혁운동선상에서의 단순오류나 동지적인 비판으로 고칠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회진보연대가 후보 이재명의 낙선을 선동하면서 사실상 후보 윤석열 당선운동을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회진보연대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라. 윤석열 당선 이후 국내 정치권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의 대부분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300여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저열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에 대한 무지를 넘어 정확히 변혁운동의 대상, 즉 적(敵)의 편에서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의 국제정세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입장, 대중선동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규정은 인식의 한계와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질과 현상을 왜곡한 것이다. 결국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부정의의 전쟁만 일삼는 미·유럽제국주의 나토와 히틀러에 비견되는 파시스트인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옹호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입장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침략에 대한 저항마저도 <테러>로 왜곡하며 세계 진보적 민중의 단일전선을 흐리고 있다. 나아가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적, 미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현대제국주의 체제인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고수해야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정확히 제국주의침략전쟁, 부정의의 전쟁을 비호하며 이에 맞서는 세계반제세력을 평화의 파괴자로 호도하는 사회진보연대를 악성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불러야 하겠는가.

역사적으로 변혁운동의 발전은 내외의 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주의세력들과의 사상전을 동반한다. 사회진보연대와 사상전은 제국주의·파시즘의 악성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백신이자 변혁운동발전의 사활적인 과제다. 우리는 오히려 사회진보연대의 제국주의적, 파시즘적 주장과 입장에서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단결된 힘으로 기어이 이룩할 세계 반제투쟁의 최후승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된다. 과학적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왜곡할 수 없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진보연대라는 악성바이러스는 진리와 진실이라는 백신으로 무장한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단결된 투쟁으로 파멸을 눈앞에 둔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박멸될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제국주의와 파시즘과 투쟁하는 사람들

사회진보연대는 누구의 편인가?

변혁운동은 적과 아가 분명한 싸움이며 이를 구분 짓는 통일전선이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극우·보수진영과 새로운 체제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진보·개혁진영의 목숨을 건 투쟁이기 때문이다.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적 문제인 통일전선전략에서의 오류는 곧 변혁운동의 패배를 의미하며 중간층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이적행위에 다름없다. 한마디로 과학적인 통일전선론의 정립과 구현은 변혁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다.

진보·개혁·보수·수구의 스펙트럼에서 정치적 구분은 변혁운동을 벌려나가는 데서 기초적인 문제다. 변혁운동대오가 수구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대오는 이미 진보세력이 아니다. 또한 수구와 보수의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가장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구분도 틀렸다. 가장 나쁜 놈을 덜 나쁜 놈이라 하고, 덜 나쁜 놈을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한다. 가장 나쁜 놈을 고립시키느냐 아축이 고립되느냐의 문제다.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기에는 아축역량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된다.

사회진보연대는 누구의 편인가. 한마디로 미국의 편, 윤석열의 편이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제국주의의 편, 파시즘의 편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민지 초과이윤수탈로 식민지민중의 고향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제국주의와 그에 의해 이식된 파시즘의 논리와 주장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재생산하는 사회진보연대의 본질은 명백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정권교체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미명하에 파시스트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파시스트 젤렌스키를 비호했다. 사회주의국가인 북과 중국, 전투적으로 합세한 러시아의 북·중·러 반제전선을 거짓·왜곡선동으로 <악마화>하면서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를 지켜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팔레스타인전에 대해서는 하마스의 저항을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교하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이 일제의 탄압에 빌미가 된다는 논리다.

이 모든 사실은 사회진보연대가 스스로를 제국주의와 파시스트의 어용나팔수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 시대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진보적 인류의 정의로운 반제투쟁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반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몰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있다. 나아가 머지않은 날에 사회진보연대가 애써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반제전선의 최후승리가 이뤄지면 유례없는 역사적 대고조기로 들어서게 된다. 윤석열을 민중항쟁으로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반제투쟁으로 몰아내는 역사적 대장정의 거대한 파도속에 사회진보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대변하는 3가지 악성바이러스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3.31),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를 살펴보면 정확히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편에서 있는 사회진보연대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사회진보연대가 현 시기 제국주의·파시즘이 만들어낸 악성바이러스라는 역사적 증거물로 기록될 것이다.

1) 미·유럽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나토 동진을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은, 나치 독일의 생존공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면서 미·유럽제국주의 나토의 침략적 성격이 우크라이나전쟁의 근본원인임을 부정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3.31)

사회진보연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표면적으로나마 무력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유럽에서 독일을 안정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평화를 가져왔다. 불안정하나마 핵무기의 확산을 막은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힘이었다.>며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현대제국주의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3.31)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 인류의 실리에 부합한다.>며 미제국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이른바 <국제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며 미제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현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화되고 있는 북·중·러 동맹의 목적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제전선이라는 점을 왜곡하고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핵 패권과 “적대시정책”에 맞서는 비핵평화의 길이 분명 존재한다.>며 <대부분의 비핵국가와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NPT, 비핵지대조약, TPNW 등을 통해 강대국들의 핵 패권 해체와 세계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해왔다>고 했는데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의 비핵화와 관련한 2중잣대적 논리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 개발이 세계와 한반도가 '탈냉전'으로 접어들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실은, 북한은 바로 이 탈냉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며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 약속 위반을 미국의 압박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미제국주의가 벌였던 1990년대 소련사회주의붕괴전후 대북 고립압살전략을 외면하면서 제국주의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의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일맥상통하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의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세계 190개국 가입해 있는 NPT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현존 제도 안에서 해법을 모색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이라는 논리는 미제국주의가 조종하는 제국주의체계에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을 위배한 불법 침략>이라고 규정하지만, 합의와 조약을 무시하고 그 이행에 태공한 것은 서방측이며, 신나치세력을 끌어들이며 돈바스지역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은 미·유럽제국주의 나토와 이에 맞선 러시아의 반제반파쇼전·해방전·예방전이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무기는 외국 무기더라도, 지금까지 전투를 수행한 주체는 외국군이 아니라 수많은 자원병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지휘권은 나토에 있다. 전쟁이전 수년간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와 대러전쟁연습을 벌여왔고 우크라이나전에 지원되는 천문학적 전쟁자금은 미제국주의로부터 나오고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대만 침공 위협처럼 '무력으로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질서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릇된 전쟁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의 <사회운동은 미국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반제국주의 진영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제전선의 승리에 대한 두려움이 비껴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보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가까운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면서 <하나마나한 주장>이라며 후보 이재명의 남북관계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 CVID는 미제국주의 대통령 부시가 내세운 불가역적인 핵폐기 정책으로 대북고립압살전략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리>적 안인양 치장하며 친제국주의·반북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의 <일본은 한국의 적성국가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일본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일본에 대한 비판은 한일관계에 백해무익하다는 윤석열의 관점과 일치한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 주도의 미일한동맹체계, 즉 미제국주의의 지배전략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미일한3각군사동맹전략과 일본군국주의를 비호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평화헌법이 과연 일본만이 지켜야 하는 징벌적인 조항에 머무르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평화헌법의 정신은 세계 모든 나라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일본의 주장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2) 파시스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우리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이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20대 대선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공개지지하는 선거전략과 노선을 선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도 한 축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다른 한 축으로는 그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검증은 제시할 것이다.>라면서 소책자의 기획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이재명죽이기의 일환으로 수사·공소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추진한 최소 300여회 이상의 압수수색 시도를 연상시킨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120시간 발언이나 아프리카 발언 등으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고 <친노동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국가경제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치 윤석열의 정책들이 대안인 듯 부각시켰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윤석열이 <이명박과 같은 반노동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노동조합을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윤석열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만 놓고 봐도 황당한 주장임이 틀림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20대 대선에서 <가장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면, 이재명이 가장 나쁜 답>이라고 단언했는데, 이는 극우진영, 보수진영, 개혁진영, 진보진영으로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기준도, 상식적인 진영 구분도 모르는 천박한 이론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후보 이재명의 <추진력>을 언급하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들을 미국의 트럼프, 독일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연결시켜 독재자, 파시스트의 이미지를 씌웠는데, 어떻게든 후보 이재명을 후보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회과학적으로 조금만 분석해봐도 예측성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자기의 독자적 기반이 거의 없는 중간층, 즉 개혁보수진영의 인사 이재명을 독재자, 파시스트에 비유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권력유지용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기관의 통제와 악용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든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출세를 위해 줄 서 있는 수많은 정치검사들의 당시 두려움과 결코 다르지 않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사회진보연대는 후보 이재명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 보도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지만, 윤석열정부가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강행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선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시절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다 정권교체 후엔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3) 북·중·러를 반대하는 반민중전선을 구축하자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현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고수하는 것이 북·중·러가 주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사회진보연대에게 적은 북과 중국, 러시아인데 북·중·러는 정확히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대편에서 반제투쟁을 하는 반제세력이다. 사회진보연대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미·유럽제국주의와 일본국군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질서다. 침략과 약탈을 생명으로 하는 제국주의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이에 맞서는 반제전선과 반제투쟁을 비방·중상 모략하고 있다. 나아가 실천적으로 반제전선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하고 제국주의의 편에 서서 싸우자고 선동하는 데에 이르렀다.

아래는 그러한 사회진보연대의 주장들이며 이는 곧 제국주의의 논리와 그대로 통한다.

<지금 우리는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살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이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세계 질서보다는 낫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의 계급투쟁 속에 조정되고 관리된 시스템>이라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현하는 제도>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노골적인 중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군사적 팽창을 꾀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대북관계를 개선하거나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는 건 잠깐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독을 집어먹는 꼴>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중국 중심 세계질서는 대안도 차선도 아닌 최악의 길이기 때문> -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2021.11.4)

〈대만에서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2023.10.31)

〈국제사회는 물론 전세계 사회운동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반대해야 하며, 남한 사회와 사회운동은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고 동아시아 전쟁으로 변질 것이 자명한 중국의 대만침공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2023.10.31)

〈사회운동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이에 맞서 투쟁하는 각국 민중과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국제연대를 만드는 것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기치에 부합합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 등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목도한 대만 시민들의 ‘통일반대’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2023.10.31.)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들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2023.10.31)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사회운동의 실천이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권위주의 국가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2023.10.31)

변혁운동대오내 침투한 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주의의 온상인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의 수정주의·기회주의·종파주의적 실체

사물현상의 속성은 반드시 운동을 통해 드러난다. 존재, 속성, 운동의 관계에서 존재가 속성을 규정하고 속성이 운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파시스트 윤석열과 미제국주의가 수시로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운동을 통해 존재의 호전성, 침략성, 대북적대성이라는 속성의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윤석열 지지운동과 반복·반중·반러 입장과 활동은 이 단체의 속성이 파쇼적이며 제국주의적이라는 걸 입증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이러한 반변혁적 주장과 입장의 근원은 태생적으로 내재돼 있는 이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목적은 <사회진보>가 아니라 <사회퇴보>를 위한 제국주의·파시즘의 모략책동에 정확히 복무하며 정의로운 반제투쟁과 변혁운동을 교란시키기 위함이고 이는 그릇된 사상이론으로 제국주의의 어용나팔수를 자임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사상적으로 수정주의, 노선적으로 기회주의, 조직적으로 종파주의 단체다.

사상적으로 변혁사상의 진수를 수정하고 노선적으로 좌우경기회주의를 설파하며 조직적으로 변혁운동대오를 분열시키고 있다.

첫째, 사상적으로 수정주의다.

사회진보연대의 사상적 핵심기반은 국외적으로 알튀세르고 국내적으로 윤소영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알튀세르는 평생을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맑스주의의 개량을 시도한 수정주의자다. 그는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변혁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준 맑스주의를 재해석한다는 미명하에 구조주의론, 이데올로기론, 우발성의 유물론 등 다양한 이론을 설파하며 사실상 맑스주의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세계변혁이라는 실천에 하등 도움을 주지 못하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적 오류를 범했다. 그의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이데올로기론은 형식을 절대화한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형식주의의 전형이며 형이상학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런 수정주의자를 국내에 소개하며 사상적으로 추종한 사람이 바로 윤소영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사상적 측면을 담보하고 있는 윤소영의 말과 글에서 반변혁적인 내용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노선적으로 기회주의다.

노선은 길이며 잘못된 노선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혁운동을 인도하고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노선의 중요성이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핵심인물 윤소영은 <사회구성체>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다른 표현인 독점강화종속심화론을 주창한 핵심인물이다. 변혁운동의 성격은 사회성격규정을 통해 분석된다. 한국사회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인데, 이는 식민지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본질이 서로 다른 사물현상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킨 관념론적 이론이다.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속의 동물인 스펅크스처럼 식민지와 국가독점자본주의 곧 제국주의가 한 몸이라는 형용모순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또한 신식민지란 개념은 이론적으로 오류며 식민

지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제국주의 통치방식의 변화에 따른 구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존재할 뿐이다. 일제가 총독부를 설치하고 <직접통치>하는 방식의 구식민주의와 미제가 대리통치체제를 세우고 <간접통치>하는 방식의 신식민주의가 그것이다.

셋째, 조직적으로 종파주의다.

사회진보연대의 사상이론적 오류와 한계는 변혁운동내의 조직적 분열을 야기하는 종파주의를 낳는다. 사회진보연대가 민주노총 등 현장의 대중조직을 장악해 수정주의사상과 기회주의이론을 마구잡이로 내리떡이며 사상적 혼란과 조직적 분열을 불러오는 건 필연적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전 관련 인증샷 찍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의 방조아래 추진되는 왜곡된 반러시위를 노동현장에 강요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노조선거에서 자파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정파인물과의 야합도 서슴지 않는 사례는 비밀비재하며 사회진보연대의 한 노조간부가 변혁적 의의가 있는 해외순회투쟁을 훼방하고 개량적인 노선채택을 부추기는 등의 종파적 행각들은 일일이 따지기도 어렵다. 종파주의는 역사적으로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며 올바른 변혁운동의 길을 한사코 막아 나섰다.

사회진보연대의 반변혁적 <말>과 <글>

사회진보연대의 기본 관점과 입장이 제국주의의 논리에 기초하다보니 그들이 변혁운동선상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반변혁>적인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사회진보연대의 <반변혁>적 관점과 입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말과 글이다.

1) 사회진보연대의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2중잣대

하마스 역시 '팔레스타인 대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더는 테러공격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의도 민간인 납치, 살해, 인질을 테이블에 올려둔 협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이라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대의'의 실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3.10.25, 사회진보연대)

러시아의 침략 수행을 돕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우리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공범이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2023.9.15, 사회진보연대 성명)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미국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다. 이라크 파병은 침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침략에 맞서는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3.4.28, 사회진보연대)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즉각 한국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10.20, 사회진보연대 성명)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반영된다. (2022.8.3, 사회진보연대)

2)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만 죽이는 사회진보연대

11월 5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주요 후보가 확정된 이 시점에서 전국학생행진은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감수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이 낫다. (2021.11.5,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최근 <재론 문재인 정부 비판>이라는 책을 펴낸 윤 교수는 “입장문들을 보면 내가 낸 책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파시즘적 경향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것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면 파시즘을 막기 위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자와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운동권이든 좌파 지식인이든 파시스트는 막아야 하니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21, 경향신문)

진영논리를 넘어 대안적 정치·사회운동 형성 촉구. 정치양극화와 인민주의의 심화를 인식하고, ‘반보수전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운동내 토론을 촉구하겠습니다. (2023.4.3, 사회진보연대 2023년 활동방향)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합니다. 포퓰리즘 정치는 불안한 우리 삶에 파고들어 모두의 바람을 이뤄준다고 현혹합니다. 내편이 아닌 상대는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과학적 진실조차 부정합니다.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대안적 정치·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2023.9.25, 사회진보연대 소개글)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구조적위기에 빠졌습니다. 한편 반경제학과 포퓰리즘이 사회운동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깊어지는 자본주의 위기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2023.9.25, 사회진보연대)

문재인 정부를 타락한 포퓰리즘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유의미한 개혁세력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더 폭넓게 말하자면 사회운동이 대선을 향하는 전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요하는 진영 논리나 포퓰리즘 정치의 중독성을 벗어나서, 민주당 비판, 심판의 최적임자라는 대표성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1.11.11,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이미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요점만 말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선택적 권력 부패 수사보다 공수처의 대통령 청부 부패 수사가 더 위험하고, 준-사법부 성격의 검찰이 저지르는 권력 남용보다, 준-군대 성격의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이 더 무섭다. (2021.3.9, 사회진보연대)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일 정서에 의존하여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주당이 일본 언론보도 등으로 촉발된 독도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여론몰이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 시기 반일선동과 흡사하다. (2023.5.12, 사회진보연대)

윤석열정부가 미국일변도 외교노선을 택하면서 균형외교가 파탄 났다는 인식도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과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대중국수출을 고려한다면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023.5.2, 사회진보연대)

3) 미제국주의가 조종하는 <색깔혁명>전략에 복무하는 사회진보연대

권위주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국제민중연대 구축. 권위주의·팽창주의 국가의 국제질서 파괴와 한반도에서 점증하는 핵위험을 비판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민중연대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4.3, 사회진보연대 소개글)

사회진보연대는 권위주의, 팽창주의의 위협에 맞서 반핵평화 국제 연대를 실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 북한의 선제공격 법제화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행보가 기존의 국제질서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변화한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반핵평화 국제민중연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3.9.25, 사회진보연대 소개글)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 시민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2023.2.23, 사회진보연대 성명)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전 세계 좌파의 목소리-아프리카, 중동. 이스라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이기면 전 세계가 패배하기 때문이다.” (2023.11.7, 사회진보연대)

4) 그릇된 노선과 잘못된 정책을 유포하는 사회진보연대

연대임금·연대고용, 노동자운동의 혁신 논의 전면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시기, 노동자계급 내부적 차축소와 단결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4.3, 사회진보연대 소개글)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지향합니다.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시대, 노동조합은 무질서한 각자도생을 넘어 더 너르고 튼튼한 단결을 꾀해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간 격차 축소를 향한 노동자운동 혁신에 복무합니다. (2023.9.25, 사회진보연대 소개글)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운동의 전략으로 연대임금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연대임금 전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저 성장과 임금격차 현실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오기형 국장은 연대임금 문제의식을 임단협 요구안에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현장에서 함께 하며 질서를 만드는 게 필요함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3.5.30, 사회진보연대)

윤소영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가 “노동자들을 분열·경쟁시키는 자본가들의 계급투쟁”이라며 반대하는데, 학생행진도 이 주장을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하락과 일자리를 감소시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분열·경쟁시키고 있다고 사고하는 것 같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역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 갈등을 낳”고, “노동자들을 분열·경쟁시키는 자본가들의 계급투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2021.11.11, 통일시대)

민주노총이 문제로 제기하는 8,000명 규모의 7월 3일 집회는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었다. “실천적 검증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은 총파업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쟁점을 사회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판돈으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10월 20일 대규모 도심 집회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다시 숙고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파업전술을 개발하고 실천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21.10.1,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측 대표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약 15% 인상)으로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2021.5.20, 사회진보연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집권 4년을 발본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방향은 옳았으나 실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방향부터 틀렸다는 점을 사회운동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당연히 박근혜 탄핵 촛불 역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촛불연합’을 재건하자는 식의 선동이야말로 사회운동이 가장 경계해야 할 바이다 (2021.4.13,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은 세월호 투쟁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퇴진촛불’을 단호히 비판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냉각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땀감을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운동은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회를 향한 염원과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촛불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퇴진촛불’과 다른 행사로 인식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선한 의도로 기획했다라도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그래서 사회진보연대는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이 11.12 시민추모 촛불을 주최하는 것에 반대했다. (2022.11.15, 사회진보연대)

‘경찰의 독립성’은 짝이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짝이 맞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청와대 내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내 공식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분명히도 경찰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폐습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확대되어야 하는데, 문민통제라는 방향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이 벌이는 격렬한 반발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2.7.26, 사회진보연대)

5) 일본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진보연대

나아가 필자는 사회운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학부정론’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게다가 필자가 보기에 포퓰리즘 정치는 과학부정론과 친화성이 매우 높다. (2023.9.12, 사회진보연대)

윤소영 교수가 2018년 3월 대학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인 매매춘”, “자발적으로 성 제공”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윤소영 교수가 박정희 시대의 ‘한일국교정상화’를 지지하고, ‘국제법’ 운운하며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문제 청산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자 수준의 극우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11.11, 통일시대)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한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2023.5.12, 사회진보연대)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제재가 단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마치 국민적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기 쉬운 표현이었다. 여당 특위장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부터 내놓는 현실을 보면, 여당이 이번 사안을 여당 지지세력의 집결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우선적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우리 사회운동은 규탄해야 한다. (2019.7.11, 사회진보연대)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의연은 한일합의를 박근혜정부의 적폐로 몰아 파기할 것을 주장했다. 핵심 근거는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에 어긋나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합의 당시 생존자 47명 중 34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피해자중심주의가 아닌가. 또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다르게 일본으로부터 법적인 책임 인정을 받아낼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가. 정의연이 민주당의 반일민족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대가로, 집권 이후 정부의 지원과 윤미향 전 대표의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20.9.14, 사회진보연대)

극우언론이 극찬하는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며,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고 했다. (2020.6.19, 조선일보)

PD 계열에 뿌리를 둔 좌파 단체 사회진보연대가 그제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국내 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고,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며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 진보 진영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북한 비판이다. (2020.6.20, 조선일보)

좌파마저 5·18 처벌법 비판 “21세기 종교재판, 막걸리 보안법 부활”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역사왜곡처벌 특별법(5·18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보수는 물론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29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집권세력의 역사 인식에 반하는 사상과 표현은 처벌되는 ‘21세기 종교재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0.10.30, 조선일보)

“포퓰리즘의 끝을 봤다” 15년 노동 운동가는 왜 진보에 등 돌렸나. 그는 15년 동안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돌연 노동운동을 멈췄다. 그 후 어떤 학자, 평론가보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객이 됐다. 그는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보며 청춘을 다 쏟아부은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에 느꼈던 의구심이 환멸로 바뀌었다”고 했다. (2022.12.18, 조선일보 한지원 인터뷰)

북한 비판한 ‘좌파단체’ 사회진보연대, 조국 전 장관도 비판했었다, 사회진보연대는 9월 10일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은) 한국 정치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특혜 의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떠올리기 충분했다”며 “그동안 SNS를 통해 조국이 보여줬던 언행들은 분노를 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2020.6.20, 월간조선)

[조선일보] 학생운동권 “윤석열 지지…진정한 좌파라면 이재명 못찍어”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20대 대선,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 입장문에서 “민주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 윤석열 후보 지지도 감수할 수 있다”며 “20대 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타락을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11.5, 월간조선)

사회진보연대에 내외부가 침 뱉고 돌아서는 건 필연

사회진보연대는 주지하듯, 가장 극렬하고,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퇴보적인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정치적 타락상을 조선일보라는 반동매체를 수단으로 확인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반공 반북, 친미 사회진보연대의 반동적 타락상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준다. 사회진보연대를 준열하게 규탄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정치적 타락상의 원인을 발본적으로 규명하자! (2022.3.25, 노정협)

오히려 “북한”에 대한 맹목적 태도는 사회진보연대가 가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야말로 반북주의 적대감으로 지배계급의 특수사상인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북한과 한반도(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맹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6.26, 노정협)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첫째, 그들이 미국과 옛 소련 사이의 경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 둘째,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 하나를 “전후 형성된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으로 보고 있다. 셋째, 사회진보연대는 나토 동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무시하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라며 옹호한다. 넷째,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이라크 등을 침공한 것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침공이 “규칙 기반 질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기술(記述)하고 사례를 나열할 뿐이다. (2022.4.20,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북을 말살시키기 위해 비핵화를 외치고 반북반공주의를 유포하는 미제와 반공부르주아, 미제의 승인만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대주의에 “알리바이”를 주고 더 나아가 지배계급의 반동적 세계관과 반공적 공세에 정당성을 심어주고 있다. 그것도 좌파로 행세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회진보연대식 사고와 행보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2020.6.26, 노정협)

사회진보연대는 서방·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2022.7.9,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가 러시아 규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런 갈등에서 미국과 나토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다. (2022.7.9,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민족자결권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지금의 사회진보연대로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2022.9.20, 노동자연대)

윤소영 교수와 사회진보연대의 사례를 따라, 학생행진은 남북문제, 분단문제에서 극우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던 학생행진은 자본의 사악한 변호론자, 제국주의의 주구, 반북반공주의를 외치는 극우학생행진으로 전화(轉化)되었다. 사회진보와 연대를 위해 극우적 학생단체의 광폭한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2021.11.11 통일시대)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2019.5.22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2019.7.2, 노동자연대)

11월 5일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좌파로서의 정치적 파산에 이르렀다. ‘행진’이 저지른 오류의 핵심은 한국사회 좌파운동의 역사적 책무인 자본주의 정치구조의 종식과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변혁적 실천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치전망을 극우정당 지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021.11.6, 노해투)

특히 지난 11월 5일 학생운동그룹 학생행진이 낸 “20대 대선,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은 못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좌파 학생운동 조직이 두 보수 양당의 우위를 견주며,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치세력의 지지조차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21.11.15, 플랫폼C)

“민주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감수할 수 있다”고 직접 적어 넣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는 점이 그 이유인데, 때문에 《행진》에서 활동했거나, 그들과 함께 운동을 해 온 모든 이들은 분노와 배신감, 모욕감으로 치를 떨며, 일각에서는 《행진》의 그간 행보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1.11.6, 말랑키즘)

윤소영 교수의 성차별 언행 문제가 제기되었고 추가로 여러 문제가 알려졌음에도 묵살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시하던 전략적 관계가 과천연구실에 의해서 파기되었는데, 일언반구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논란과 많은 회원들의 강요된 탈퇴를 이념 토론이자 조직 정화의 과정으로 평하는 심리도 모르겠습니다. 내놓기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글들이 내외부에 발표되는 까닭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탈퇴회원의 글)

윤석열과 사회진보연대 그리고 진보진영

우리는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윤석열과 제국주의의 어용나팔수인 사회진보연대가 하나의 본질로 통한다는 걸 확인한다. 가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 침략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고,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우크라이나 민중들 사이의 투쟁>이라며 국제적 지원을 언급한 것이 그 실례다. 다음은 그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윤석열	사회진보연대	진보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절 <친일 기념사> 비판에 대통령실 <제국주의 침략 정당화 대통령 어디 있다> 반박 (2023.3.3, 서울경제) •일본제국주의 대신 <반윤석열 세력> 겨냥한 대통령 (2023.8.15, 오마이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 •사회운동은 미국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반제국주의 진영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2023.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우 전쟁 최대 수혜자는 미국 군수·에너지 업체> (2023.3.5, 인천투데이) •<전쟁배후세력 미제국주의 규탄한다!> (2023.11.4, 11월세계반제동시투쟁) •<미제국주의전쟁책동반대! 북침전쟁연습중단! 전세계미군철거!> (2023.4.9, 세계반제동시투쟁 서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러시아, 침략 규탄받아 마땅...말만 <종전선언>, 평화 보장 안해> (2022.2.24, 조선비즈)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 무기 공급은 전쟁개입> .. 대통령실 <노코멘트> (2023.4.19, 부산일보) •우크라전 1년, 반러로 뭉친 서방 (2023.2.24, 연합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우크라이나의 독립되고 해방된 민중들 사이의 투쟁입니다. •러시아 미디어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주의적 야욕의 실현입니다. (2022.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나치즘의 형성과 러시아반나치군사작전의 전개 .. 우크라이나신나치권력이 오히려 러시아를 침략자·파시스트로 왜곡하기 위한 시도는 시종일관 계속됐다 (2022.5, 항쟁의기관차) •현시기 세계반제동맹은 중·러없이 이해할수 없다 (2023.1, 칠레프롤레타리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일본 한반도 개입? 유사시엔 들어올 수도> (2022.2.25, 이투데이) •윤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은 생각 동의 못 해> (2023.4.23 한겨레) •<우리 가치관과 가장 일치> .. 일본의 윤 대통령 <극찬> (2023.8.23,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이 일본 언론보도 등으로 촉발된 독도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여론몰이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 시기 반일선동과 흡사하다 (2023.5.12) •한일국교정상화를 가능케 한 양국간 조약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외교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국가 간 관계를 규제하는 조약이 바로 국제법이라는 것 (윤소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되는 제국주의 침탈 우리가 막아내야> .. 6.15뉴욕위, 일본총영사관·한국총영사관 앞 시위 (2022.11.5, 통일뉴스) •<일본정부 전쟁범죄 사죄배상! 친일매국 핵오염수 윤석열 타도!> (2023.7.8, 반일행동시민문화제) •<친일매국 핵오염수 윤석열 타도!> (2023.7.6, 7월세계반제동시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러시아, 침략 규탄받아 마땅...말만 <종전선언>, 평화 보장 안해> (2022.2.24, 조선비즈)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 무기 공급은 전쟁개입> .. 대통령실 <노코멘트> (2023.4.19, 부산일보) •윤석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을 가꾸는 동반자 될 것> (2023.7.16, 비즈니스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권이 장기통치를 위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되었고,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침략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을 반대해야 합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은 침략에 맞서는 항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전은 반제반파쇼전이다. 러시아가 제국주의나토와 벌이는 반제전이고 제국주의나토의 폭두각시인 우크라이나파쇼세력과 벌이는 반파쇼전이다. (2023.9 <전쟁의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의 팔레스타인전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찾을 수 없으나, 미국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비난하고 <자유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2023.4.26) •윤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긴급회의 .. <테러행위 규탄> (2023.10.11,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또한 민간인 납치, 살해와 같은 전현대적인 극단적 폭력으로 팔레스타인 인민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진정 팔레스타인 인민을 위한다면 테러리즘은 중단되어야 한다 •푸틴이 승리하는 작은 전쟁을 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하마스 역시 이런 이벤트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다 (2023.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해방!> (2023.10.15, 10월세계반제동시투쟁) •<이스라엘, 폭격 중단해야> .. 도심 곳곳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2023.10.27, 이데일리) •팔레스타인전, 제국주의몰락 앞당길것 .. 팔레스타인민중의 전격적인 해방전과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시오니즘과 미제국주의 (2023.11, 항쟁의기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불법...중국 책임있는 역할해야> (2023.9.18, VOA) • 윤석열 대통령, 유엔서 러시아 직격 .. <북러 군사 거래 좌시하지 않을 것> (2023.9.21,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 (2023.9.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 북한의 선제공격 법제화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행보가 기존의 국제질서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2023.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중·러의 긴밀한 전략기술적협동 .. 북중러는 그역사성과 현시기 반제반딤스전선의 공통된 이해관계로 해서 공고하고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2022.7, 항쟁의기관차) •주도권을 잡은 북·중·러, 전세계에서 패퇴하는 제국주의 .. 미·나토에 맞서 공고한 반제전선을 형성해 반제무장투쟁을 함께 벌인다는것은 몇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2022.12, 항쟁의기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박근혜 생각하면 마음 아파> (2021.7.11)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2021.7.20)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 있으면 민란 났을 것> (2021.7.20)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 (2021.9.13) •<극빈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뭘지도 몰라> (202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이 낫다 (2021.11.5, 전국학생행진) •120시간 발언이나 아프리카 발언 등으로 후려가 커진 것도 사실 .. 친노동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도, 국가경제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11.4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동사건>의 주범 윤석열은 당장 후보사퇴하고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2022.3.7, 민중대책위원회) •펜스와 윤석열의 만남, 윤석열과 안철수의 야합 .. 윤석열은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 방안을 비롯해 안보와 한미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2022.3, 항쟁의기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 일하겠다는 사람 있다더라> (2021.12.1, 프레시안) •尹정부, 직무·성과급제 속도 낸다 .. <합리적 임금체계 준비> (2022.6.3, 서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측 대표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약 15% 인상)으로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2021.5.20) •자본의 이윤을 어느 정도 줄여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대기업·공공부문·상위소득 노동자와 중소기업·민간부문·저소득 노동자 간의 임금조정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 (2019.5.22)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운동의 전략으로 연대임금을 제안 (2023.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지역, 정규직·비정규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임금의 보장 .. 오랜 역사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이었다 (2020.4, 항쟁의기관차) •<최저임금 1만2천원> 노동자 1만여명 도심 집회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고 고착시키려 한다 (2023.11.18, 매일노동뉴스)